

# 국정기획위 발족... 文 정부 국정운영 5년 밑그림

### 최장 70일 활동... 내달 말 5개년 계획 수립 전망 위원장에 김진표... 일자리위 부위원장에 이용섭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통령 1호 업무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두 위원회 설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며 임기 5년 동안의 정책 로드맵을 그리게 된다. 자문위는 최장 70일간 운영할 수 있지만,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말에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임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위원 30명 이내가 참여하고, 6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함께 대한 공약을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현실성을 따져보고 소요 재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김 위원장 인선 배경과 관련, "전체적인 국정운영 경험

### 국정기획위원장·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프로필

국정기획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b>김진표(70)</b> 경기수원출생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과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17~20대 4선 의원	 <b>이용섭(66)</b> 전남 함평출생 전남 학다리고, 전남대 무역학과,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 경제학과, 상공연대 경제학박사 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18·19대 2선 의원

과 국정인수 경험이 풍부한 점을 감안한 인선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당장 실현 가능한 공약은 단기과제로 제시하고, 사회적 저항이 큰 개혁 등은 장기과제로 구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무총리실과의 협업을 통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상황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



**특사단과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추무실에서 미·중·일·러·유럽연합 주요국 특사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인왕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러시아특사, 문희상 일본특사, 문 대통령, 이해찬 중국특사, 홍석현 미국특사. /연합뉴스

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직 위원 30명으로 구성된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맡으며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다.

김수현 수석은 이 부위원장에 대해선 "장관과 청장을, 각각 두 개 부처를 역임해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진 내지는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한다"며 "대통령이 일자리 관련 제반 정부정책을 직접 조율·평가하고 기획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문 대통령 교황청 특사에 김희중 대주교 파견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교황청의 외교사절 한국 파견 70주년을 기념하고 한·교황청 관계 증진을 위해 김희중(70)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을 특사로 교황청에 파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고 교황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파견과 관련해 "전 세계 12억 카톨릭의 중심이자 해의 전역에 100여개 공관을 유지하고 있는 교황청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유가족과 위안부 할머니, 꽃동네 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줘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청정 전남

### 대기질 전국서 가장 양호...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성과

'전남은 공기 청정지대'. 최근 미세먼지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대기질이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1년 41µg/m³, 2012년 36µg/m³, 2013년 39µg/m³, 2014년 38µg/m³, 2015년 38µg/m³였다. 전국적으로는 2011년 50µg/m³, 2012년 45µg/m³, 2013년 49µg/m³, 2014년 49µg/m³, 2015년 48µg/m³으로 분석돼 전남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16년 전남지역 연평균 농도 역시 제주(40µg/m³)보다 낮은 35µg/m³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보급, 온실가스 감축, 노후 경유차 폐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까지 전기차 924대를 보급해 연간 온실가스 4620t과 미세먼지 4.5t(1일 140km 운행 기

준)을 저감했으며, 경유버스 대신 천연가스 버스 983대를 보급해 연간 대기오염물질 약 391t을 줄였다.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760대의 조기 폐차를 유도했으며, 고갯길 등 매년 다량 발생 지점에서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228대에 대해 개선 등 권고조치를 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823개소와 대기 배출시설 1천400개소를 특별 점검해 240여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역점시책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를 통해 2016년 1112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남도는 대기측정을 2016년 5개 시·군 16개소에서 2017년 9개 시·군 20개까지 확충하고, 나무 심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보수 성향 일색'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임원 교체

### '박근혜 지지' 박상중 이사장... 뉴라이트·개신교 4명 등

### 감사위원 2명 제외 임기 끝나... 문 정부 인선 과정 눈길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기념일이 이어지는 '민주화의 계절'을 맞아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 기구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임원진도 전면 교체된다.

그간 기념사업회 임원진에 대해 '보수 성향 일색'이라는 논란이 이어졌던 터라, 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인선 과정에 시선이 쏠린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이사진은 감사위원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임기가 끝났다.

박상중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 2월 13일 만료됐고, 이계준·김영일·이일호·한기흥·김석규·조성철 이사의 임기도 5월 14일 종료됐다.

개신교 인사가 4명이나 포함돼 보수·종교 편향 논란이 일었다.

논란 속에 진보인사로 불리던 이사가 한 명 사퇴하고, 임원 인사에 항의하는 직원들이 약 7개월 동안 농성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지난해까지 3년째 시민사회단체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여는 등 박근혜 정부 내내 분열과 진통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맞물려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물갈이' 분위기가 조성되는 형국이다. 박 이사장의 경우 3개월 전에 임기가 끝났으나, 행정자치부가 탄핵 정국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새 이사장을 바로 임명하지 않고 보류해 온 것으로 해석된다.

행자부는 이번에는 새 이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임명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임명 절차 자체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중 위원장에 이어 임명된 이사진 7명 중에서도 뉴라이트 단체 출신과 함께 /연합뉴스

## 전두환 정권때 의문사 진도 출신 허원근 일병 33년만에 순직 인정

전두환 정권 시절 의문사한 고(故) 허원근(진도 출신)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16일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국방부는 "허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사체의 발견 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 허 일병은 3발의 총상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이 사건을 허 일병의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죽음이 타살이고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연합뉴스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태광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 주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 / 토지 / 기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입자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단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방 상가분양권 1층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문의 010-2572-4663

###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